

'21세기 불교' 청사진 제시

조계종 중장기 사업계획 의의

수행·포교 중심 종단운영 역점 거시적 계획...종도 역량결집 기대

4년여의 작업 과정을 거쳐 19일 발표된 조계종의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1998~2002년)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조계종의 비전을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계종은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종단의 부흥의 기회와 위협 요인, 내부 여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정책방향과 단위사업을 도출하는 SWOT 분석기법을 도입했다. 1차로 선정된 사업과제는 기술적, 경제적, 법적, 조직적, 사업기간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필요한 사업이라도 역량이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

기간이 적절하지 못하면 제외했다. 이전에도 사업계획 발표는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사업의 명분은 높았으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점에 비취볼 때 진일보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표를 통해 종단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상 제시 △종단사업의 일관성과 집중성 유지 △종단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과 역량 결집이 기대된다.

60개 사업과제의 실현의 최대 조건은 무엇보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다. 고산

스님은 이와 관련, "29대 총무원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및 사부대중에 의한 종단운영을 위해 중단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 교구본사 재가단체 등의 이해와 참여를 이끄는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내년부터의 예산 편성도 변화가 예상된다. 청사 건립 및 승가복지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사업에 대한 큰 폭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기획실장 만성스님은 "중장기 사업 중 특별회계 소관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은 교육 포교 문화 사회 분야의 사업계획에 집중 편성될 예정이며, 경성비 등은 최소한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개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설명이다.

60개 사업과제 가운데 승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10개를 배정한 것은 청정승가상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풀이된다. 수행정리 및 신도조직 강화와 불교사회운동의 전향적 추진 및 조직건설에도 평생의려 개발, 불교사회활동 프로그램개발 등 각각 17개, 18개를 배치해 교육되고 조직된 신도를 통해 사회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불교문화 새천년 사업, 연동축제 정착 등은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려복지 등을 통해 승중 혼탁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나, 기성승단의 승중진작을 위한 방안은 빠졌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의 기법과 노하우를 교구본사로 전파해 중앙총회기과와 지역과의 유기적인 결집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중장기 60개 사업과제

(필요안은 준비년도~완료년도, 실시년도)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

- 종단 근현대사 연구(2000~2001)
- 승사, 법제제도 연구(1999~2001)
- 선사유물전 개최(2000, 2001)
- 승가후복지사업(요양원) 설립(1999~2002)
- 승가의료보장 방안 연구(1999~2002)
- 승가복지기금 조성(2000~2001)
- 승가 교육제도 및 체계의 개선(1999~2001)
- 각급 교육기관의 활성화(1999~2000)
- 전공·교양교과목 이수제 실시(2000~2001)
- 승가 재교육의 다양화(1999~2000)

신행의 정립 및 신도조직의 강화

- 신행교육체계 정립(1999~2000)
- 신행체계(위계) 제도화(1999~2001)
- 각급 신도교육기관 정비(1999~2001)
- 신행프로그램 개발(1999~2000)
- 평생의려 개발(1999~2001)
- 포교신행 자문(포교전서 등)(2000~2002)
- 포교지도 작성(1999~2000)
- 수도포교 전향적 수립(1999~2001)
- 사람의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1999~2001)
- 국제종교포교 지원(2000~2002)
- 여의도 불교문화원 운영(1999~2000)
- 지역별 분야별 포교주체 육성(2000~2002)
- 각급 신도단체 임원 연수교육(2000, 2001, 2002)
- 신도단체 활동 조직체계 정비(2000, 2001)
- 신도의 종단운영 참여방안 마련(2000~2002)
- 현대화된 불교상징체 개발 보급(2000~2002)
- 사람 나눔당 건립 지원(2001~2002)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재창조

- 불교문화 새천년 사업 추진(1999~2000, 2001, 2002)
- 연동축제의 정착 및 해외홍보 강화(매년)
- 사람의 지역불교문화 활동 강화(2000, 2001, 2002)
- 사람문화원내서 발간(1999~2000, 2001)
- 불교문화의 전신체제 프로그램 개발(1999~2000)
- 중앙불교문화재 조사사업단 설립(1999~2001)
- 성보문화재 종단지정사업 확대(2000~2001)

불교사회운동 전향적 추진 및 조직건설

- 불교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1999~2000)
- 불교사민사회활동 조직 육성(2000~2001)
- 자비의 대중화운동 기금 조성(매년)
- 남북불교지도자 상호방문 추진(1999~2000)
- 금강산내 전통사찰 복원(1999~2001)
- 남북불교학자 공동조사연구 추진(2000~2001)
-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정(1999)
- 종단 영문소식지 발간(1999)
- 한국불교문화 인내책자 발간(2000~2001)
- 해외사찰 현황파악 및 종단 연계 강화(1999~2001)
-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정(1999)
- 전통사찰 보호구역 설정 및 책자 발간(2000~2001)
- 지역단위 사찰현황조사연구 구성(2000)
- 환경책자 발간(2000)
- 사람 1복지사업 설치운동 추진(2000~2001)
- 종단지정문화유산사업 설립(2000~2001)
- 사회복지사업 및 정보자료실 운영(1999)
- 불교복지위원회 조직 및 모금사업(1999~2000)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 통합종중행정 전산망 구축(2000~2001)
- 이미지 사업 추진(1999)
- 사람 10빛기운동 추진(1999~2000)
- 종단 정보전산망 구성(2000)

기간시설 건립

- 불교종합회관 건립(1999~2001)
- 불교중앙박물관 설립(1999~2001)
- 중앙연수원 설립(2000~2002)
- 상설종교교육원 설립(2000~2002)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중앙)이 교육위원장 일면스님(좌)과 포교위원장 정련스님(우), 3인의 부·실장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옛부터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고 하였다. 국민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라, 요즘 세상에서 가장 거저말 잘하는 사람을 지적하려면 당연히 정치인을 지목할 것이다. 국민과의 공약(公約)은 하늘과의 약속이다. 하늘을 머리 에 이고 하늘에 기도드리며 하늘 밑에 사는 인간이 하늘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하늘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옛부터 인륜의 도덕을 어기면 천벌(天罰)을 받는다고 하였다.

오즈를 신문에 많은 읽을거리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도덕성을 잃고 천륜의 공약을 어기는 불멸치한 사람이 있으니 집권 여당의 소위 DJP라고 하는 양두마차라고들 한다. 내각제 연기에 대하여 DJ는 "내각제 연기의 여론이 높다"면서 "필요한 때가 되면 정권교체를 할 것"이라고 공무리를 빼고, JP는 "국회의 결단"으로 연기의사를 비치고 있다. 신문의 논평에서는 '내각제, 연기는 곧 포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DJP는 지난 선거에서 내각제 개헌 공약의 언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다.

이제 또 국민의 광계를 대고 국국의 결단을 구실로 대통령과 총리의 공약을 자신들이 헌신적처럼 내동령이 진

목어

DJP의 거짓말

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대통령과 총리는 하늘이 낸 정치 지도자이다. 그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정권 연장의 차원에서 하늘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면 그 얼굴은 멀지않아 스스로의 오물을 뒤집어쓰는 과보가 있을 것이다.

DJP는 두 분 모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라고 듣고 있다. 민심을 살피고 국민의 뜻을 잘 보고해야 할 정와대 민정수석에 목사가 자리잡았다. 그도 역시 국민을 하늘처럼 모신다고 하였다. 과연 한국 기독교의 종도 아래에서 기독교 성직자인 목사가 다 종교 사회인 한국인의 여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수렴하여 신자인 두 정치지도자에게 올바르게 민심의 동향을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하게 될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보지 않고 듣지 못함이 없다.

국민의 소리를 널리 공청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내생에 병어리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지옥이 가면 혀를 뽑는 벌(拔舌)지옥에 간다고 하였다. 인과(因果)에 떨어지지 않기(不落)를 바라지 말고, 인과에 어리석지 않는(不昧)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젊음이 있는 조직 '탈바꿈'

인사부 대불청 20대 회장 전안호씨



대한불교청년회 제20대 중앙회장 선거가 18일 대전 중앙불교대회에서 있었다. 이날 선거에서 기호 1번에 입후보한 전안호씨(포항지부 감사, 대경철강(주) 대표이사)가 62표를 얻어

이상반 후보를 10표 차이로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전안호 회장은 "아직과 독선을 버리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좌초됐던 불청을 화합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히고 "불신과 반목으로 광배한 불청을 젊음이 있는 곳으로 탈바꿈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또 "회장 선출문

제보다 회장을 보필할 적임자를 등용하는 문제가 본회 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며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부차장 인선에 불청인들의 의견을 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

를 내비쳤다.

87년 포항지부 초대회장을 거쳐 5, 6대 경북지부장, 중앙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전 회장은 △불청조직의 화합도도 △사무인력 전문화 △중앙사무국 정비 △승단과의 관계 개선 및 종단 발전에 기여 △부채 해결 △불청의 자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 회장은 모든 정책의 결정을 정관의 제도적 기구 안에서 공론화하고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dofls@buddhapia.com

"예비역 군법사단 공식기구로"

조계종 '전역법사의 활동' 세미나 제기

예비역군법사단을 종단의 공식기구(포교원 또는 군승특별교구의 산하·자원 기구 등)로 인정하고 전역 군법사에게 자격(상임포교사 등)을 부여해 포교사업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예비역군법사단(단장 성광·회계사 주지)이 16, 17일 강화 법사사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승과 50여명의 예비역 군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하계수련대회 및 '전역법사의 종단 직위문제와 향후 활동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예비역군법사들이 비승비승(非僧非俗)의 종내 지위로 인한 전역후 수행 및 포교 공간을 보장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종내내 직위문제를 정립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6월11일 예비역군법사단 대표와 포교부장 정련스님과의 간담회에서 '예비역군법사들을 포교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종단적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번 세미나 개최의 한 계기가 됐다.

예비역 법사는 160여명에 이른다. 이중 출가자로 복귀한 법사가 60여명, 교계 종사자 30

명, 교법사 8명, 교수 또는 강사 20명 등이 포교관련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당수(30% 정도)의 예비역 법사들이 실제 포교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이 현실이다.

포교원이 늦게나마 예비역군법사를 포교 일선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교계 최강의 포교자원' 확보라는 하나의 신안인 바램이 될 전망이다. 예비역군법사들의 포교역량 제고를 위해 제안한 방안들은 그래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비역군법사단 입관 과정에서 종단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군법사로 파송할 인재의 양성 및 관리 △전역예 앞둔 군법사를 공식 소집해 전역후의 적절한 신분과 자격을 부여(비구, 전법사, 중앙포교사, 상임포교사, 국제포교사, 교법사 등) △예비역군법사단을 활용해 군포교 및 다양한 직장 직능, 계층별 신령단체를 지원하도록 후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예비역군법사단은 이번 논의를 공론화시키고 종단에 공식건의, 종단적 정체성 확립과 함께 의무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 27시간 07분)
-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 24초) 3. 아미타경(13분 38초)
- 4. 화엄경 약찬계(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 41초)
-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경(2분 49초) 9. 무상경(4분 51초)
- 10. 관음정진(10분 02초) 11. 금강경(33분 15초) 12. 반회심곡(13분 07초)
- 13. 천수경(18분 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 51초)
-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 00초) ... 55. 회심곡(9분 05초)
- 56. 탑돌이(8분 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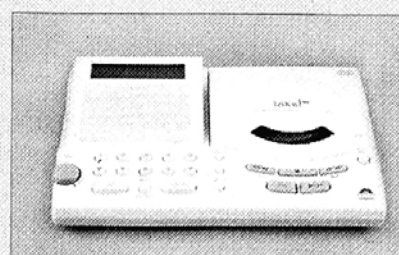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첨입니다.

-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성정



규격: W×D×H (26×18×65cm)

인켈에서 세계최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불교방송 ●

서울·경기 F.M 101.9MHz
부산 89.9MHz 광주 89.7 MHz
대구 94.5 MHz 청주 96.7 MHz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 주문방법: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 배달방법: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 보급처: 법순정사 총법회